

전남도, 소상공인 지원 '소행성 프로젝트' 추진

소상공인의 행복한 성장

김 지사, 순천 옷장서 상인간담회
금융·마케팅 지원 등 시책 발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조원 유지
로컬 앵커스토어·사회적기업 발굴

전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인 '소행성(소상공인의 행복한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일 순천 옷장 전통시장을 방문해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소행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소행성 프로젝트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촉진 △지역 상권 활성화 △공공·상생배달 앱 가맹점 및 소비자 마케팅 지원 △지역 자원 연계 로컬 브랜드 육성 시책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등 주요 시책이 담겼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3.0~3.5%)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국비 지원 발행 6500억원에 도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민생물가 점검을 위해 전통시장인 순천시 옷장을 찾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3500억원 지원을 추가해 1조원대로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원도심 상점가 이용, 타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12~15% 할인에도 나선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테마 빌리지

조성, 문화 창작 지원, 특화거리 조성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지역축제 연계 쿠폰 이벤트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공 상생배달앱 가맹점 및 소비자 마케팅 지원의 경우 가맹점 신규 가입 시 20

만 원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건당 2000원의 배달료 지원, 배달앱 이용 소비자에게 5000원 쿠폰, 5% 페이백 등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지역자원 연계 로컬브랜드 육성 시책의 경우 지역 대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로

컬 앵커스토어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운송비 지원과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이 도정 핵심가치인 만큼 앞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조동욱 옷장 상인회장, 전남도의회 김정희·김정아·한승경 도의원, 유현호 순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옷장을 찾은 이용객에게 맛과 흥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인들에게 올해 폭우, 장마 등 이상기후에 대비, 여름철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자율적 예방 노력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급감하고 소비가 침체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상인들과 소통하며 전통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옷장 상인회 조동욱 회장 등 임원들은 "도에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해 시장 환경이 쾌적해졌다"며 "옷장 상인회 주도로 준비 중인 국립축제, 남도음식거리 홍보 등의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전남대·광주보건대 '글로벌대학30' 지원

광주발전전략 연계 계획 수립
과제별 로드맵 논의·홍보 강화

광주시가 전남대학교와 광주보건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단'을 운영해 인공지능(AI)·미래차·광주다움통합돌봄 등 광주시 발전전략과 연계해 대학의 대표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활발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소관부서 부서장, 김수형 전남대 연구부총장, 오군석 광주보건대 교학부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단(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전남대와 광주보건대(대구·대전보건대 연합 신청)가 교육부의 '2024 글로벌대학30 공모 예비지정 대

학'에 선정됨에 따라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남대·광주보건대 2개반, 28개 부서장,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연구원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예비지정 대학과 수차례 실무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로, 전남대와 광주보건대의 혁신기획안 및 실행계획 대표과제 설명에 이어 실행계획서 공동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향후 추진단(TF) 실무회의 운영을 통해 실행계획서에 담을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과제별 로드맵을 논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사회 인식 제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외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수형 전남대 연구부총장은 "광주시와 적극 협력해 지역의 의지를 충실히 담은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과 대학발전의 마중물이 될 글로벌대학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군석 광주보건대 부총장은 "광주시 전체 보건·의료·복지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는 지방 대학의 미래를 넘어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현안"이라며 "올해 예비지정된 전남대, 광주보건대가 모두 본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26일까지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글로벌대학위원회)는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통해 8월말 최종 10개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한다.

노병하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